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연중 제 19 주일] 2009 년 8 월 8 일

†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

이번주 독서: 김미숙 루시아, 최미라
다음주 독서: 미정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이연재 마르코
이번주 미사 해설: 유지원 카타리나
다음주 미사 해설: 함승효 베네딕다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친교실 정리: 4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212
교무금: $ 200
감사헌금: $ 500 *
매일미사: $ 15
합계: $ 927
* 김정윤 루시아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 시 30 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8 월 14 일) 저녁 7 시, 사제관. [신부님]
금요교리: 신앙입문	격주 금요일 (8 월 21 일) 저녁 7 시, 사제관. [신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 <오늘의 묵상>

우리는 수없이 성체를 모셨습니다. 아직도 '영적인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성체를 모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체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체 앞에 선다는 것은 살아 계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략되었기에, 당연한 듯 모시는 성체가 되었습니다. 구경하는 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힘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부터 성체 신심에는 정성이 실렸습니다. 교회가 '공복재'를 규정한 것도 지성으로 모시라는 의도입니다. 지금의 공복재는 성체 모시기 전 '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70년 전만 해도 성체를 모시려면 전날 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지나친 신심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성체께 정성을 드리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성체를 자주 모시면 '그분의 힘'은 강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안과 허무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빵이 주는 '천상의 힘'입니다. 누구라도 온몸으로 성체를 모시며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성으로 성체를 모시는 사람은 '이승과 저승'에서도 결코 헤매지 않게 됩니다.

<제 1 독서> 열왕기 상권 19,4-8 < 엘리야는 음식으로 힘을 얻어 하느님의 산에 이르렀다. >

<제 2 독서> 에페소서 4,30-5,2 <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

화답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 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 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6,41-51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오늘의 성가] 시작: 15 봉헌: 342 성체: 188 파견: 31

† <생명의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구요비 욥 신부 | 프라도회 한국 책임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생물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가장 멀리 바라보고 제일 높이 나는 새로서 또한 이런 꿈을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인간의 상태를 전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완덕에 나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 영지를 얻으려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복음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추구하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갈등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앎의 즐거움을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앎을 원합니다(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응답은 신앙을 통한 앎(intellectus fidei)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은 인간 정신이 진리를 바라보려고 날아오르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요한 바오로 2세).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나는 알기 위해서 믿고,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유대인들은 5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인격의 신비, 즉 이분의 신성(神性)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42절)

성서가 말하는 앎은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함합니다. 한 인간과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심오하고 인격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앎은 어떤 분을 향한 이끌림, 매력, 애착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44절).

'내가 누구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볼 때, 개인은 자신이 알리는 내용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범위 안에서 알려질 뿐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앎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알려주실 때에야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 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45절).

이런 배경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이는 영원히 살 것이다"는 말씀의 의미가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지혜(1코린 1,24; 콜로 2,1-3; 에페 1,17-18; 요한 14,6)이십니다. 이분은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인간의 살아있는 말로서 우리의 동시대인(同時代人)으로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는(콜로 2,3) 주님께 대한 허기짐과 열정에 사로잡혀 살 때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시간과 깊은 묵상으로 관상에 이를 때에 그러합니다. 관상(contemplatio)이란 말을 풀어서 보면 예수님과 내가 같은 시간 안에 산다는 뜻입니다.

† <알려드립니다>

❖

† <말씀의 이삭>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여행

최정원 다리아 | 뮤지컬 배우

배우라는 직업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많은 것들을 '잊어야'가능한 직업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대신 살아보며 하나의 작품이 끝나면 또 다른 작품의 인생사에 빠져들어야 하기에, 새로운 인물을 살아보기 전에 살아본 배역의 인물을 완전히 내 안에서 지워내 버려야 하는 작업 또한 저에겐 무척 소중한 일입니다.

저를 다시 백지로 만들어 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여행'입니다. 그동안 지금껏 해 온 작품들의 수만큼 여행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작품 후의 여행 중에서 가장 로맨틱한 여행을 소개할까 합니다.

결혼 후에도 하던 공연이 끝나지 않아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던 저는 결혼 후 6개월이 지나서야 남편과 첫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신혼여행의 달콤함을 즐기던 도중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곧바로 수영장으로 나가 수영을 하고, 책도 읽으며 지난번 배역에 살아왔던 인물을 내 자신으로부터 떨쳐내는, 그런 망각의 여행을 보내던 도중 그만, 결혼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결혼반지를 잃어버린다 함은(그러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 잘 못 챙기는 남자들의 몫인 줄 알았는데, 아내인 제가, 그것도 명색이 신혼여행이라고 와서는 그 반지를 잃어버릴 줄이야….

남편은 수영장 관리인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였습니다. 마음씨 좋은 관리인은 결혼반지라는 말에 호텔 측에 알아보지도 않고 수영장 주변의 투숙객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수영장의 물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수영장의 물이 다 빠지기까지 실제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던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던지…. 수영장을 이용하던 대부분의 투숙객들은 객실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아마도 서너 명 정도의 외국인들은 물이 차츰 빠지면서부터 반지 찾는 일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덕분에 우린 물이 전부 빠진 수영장 바닥 한 구석에서 결혼반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98년 명동성당에서 혼배미사를 통해 서로가 주고받은 나의 결혼반지, 사실 가격으로 따지면 그 당시 오만 원 안팎의 14K 금반지였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충분히 더 좋은 반지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으로 반지를 찾아준 그분들에게 샴페인을 대접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잃어버린 그 반지 대신에 한국에 돌아와 더 좋은 반지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제 손에서 빛나고 있는 작고 초라한 이 사연 많은 결혼반지를 사랑합니다. 채우기 위해 우선은 나를 비워 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지난 공연들을 망각하기 위해, 비워내기 위해 갔던 여행에서, 그 수영장의 물을 전부'비워'냄으로써 찾을 수있었던 이 싸구려 반지를 저는 사랑합니다.